신앙의 사토리(득도) 세대

(사사기 1:1~36)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사토리(득도) 세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의 사토리(득도) 세대'
"사토리 세대"는 일본에서 현재 1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토리'는 일본어인데 '깨달음, 득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깨닫고 득도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돈 버는 일이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이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한 사토리 세대에 속한 젊은이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고시원 같은 방을 하나 빌려서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명품, 자동차, 해외여행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결혼은 꿈도 꾸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득도 세대(깨달음을 갖고 있는 세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버블경제가 깨어지면서 장기불황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라게 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해봐야 사회현실이 이룰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목표를 가져라, 꿈을 꾸라, 비전을 가져라'고 하지만 흙수저 물고 태어난 젊은이 100명이 꿈을 가진다고 해서 몇 명이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88세대라고 해서 88만원을 벌며 사는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한국으로 넘어와 토착화 되어서 '달관 세대'라고 불리게 되는데 사회학자들은 달관과 깨달음과 득도가 강요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철학적 깨달음을 자발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나 상태로 인해서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람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고 체념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체념하면서도 무기력해진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려는 기미를 보입니다. 또한 무기력함과 체념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토리 세대에서는 우울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체념자체를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절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체념 상태를 반성하고 있다면 어떤 가능성이라도 생길 때에, 그것을 붙잡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아예 체념하고 있는 상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과 체념의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토리 세대는 요즘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선민의 역사를 보면 벌써 33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체념과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버린 사토리 세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 국면이 영적 신앙적 사토리 세대입니다. 사람에게서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면 마치 자전거를 탈 때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쓰러져버립니다. 더 이상 힘이 없고 추구하려는 열정도 없고 타성에 젖어서 틀에 박힌 삶의 쳇바퀴를 돌 뿐이지 사는 것이 아닌 체념의 상태가 됩니다.
사회구조가 저성장시대로 들어가면 한 개인이 이 세대의 무게를 뚫고 뭔가를 해본다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것이 단순히 열정이 없고 그들에게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구조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대 재벌이나 40대 재벌들의 자산은 15년 전에 비해서 20~30배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불과 1~2% 늘어났어요. 돈은 쌓여 가는데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한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벌들이 국민총생산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무슨 열정과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딱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젊은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서도 나타나고, 체념과 무기력함과 타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삶은 신앙인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런 신앙인의 사토리 세대를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무려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350년의 길고 긴 세월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대하면서 이러한 사토리 세대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분할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할 정복전쟁’은 가나안 정착의 단계가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에 거점을 확보한 뒤에 땅을 제비뽑아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 분할된 땅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의 경계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온전한 자기의 땅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이 과제를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방해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복지의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너희의 계획과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으로 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의 방해만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이 유언이 지켜지질 않고 결국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렙이 85살 때에 땅을 분배하려고 다 모였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정탐사건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는 정탐할 때에 보았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나서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열정과 에너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형태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되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에 내게서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역사하실 때에 그 증거인 열정과 에너지가 어떻게 식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9절에 유다 지파가 먼저 분할된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유다 지파조차도 산에 거하는 족속들의 철 병거가 이유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강성하고 열정적인 갈렙의 후예인 유다 지파조차도 철 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으니 항차 다른 지파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다른 지파들의 분할 완전정복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지파가 철 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무찌

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시는 것을 유다 지파가 방해했다는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가 유다 지파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연배였던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갈렙의 신앙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갈렙의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철 병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인 열정과 에너지가 언제 사라집니까? 철 병거를 보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유격(遊擊)이 생길 때입니다. '유격'이라는 것은 기계와 기계는 조밀하게 서로 결합되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생겨서 겉도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철 병거 때문에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려는 아무런 계획이나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유격 없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때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으로부터 모세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붙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를 어느 한 구간도 당신이 뜻하시고 소원하시고 열정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할되고 할당된 지역 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야만,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시간과 공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신바람 나게 살아보려면 하나님과 유격이 없어야 하는데 철 병거가 유격을 생기게 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철 병거는 정탐할 때의 아낙 자손과 같습니다. 갈렙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거인 족속과,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갈렙의 마음의 시선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쪽으로 반응하지 않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제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증거 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붙으니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물자가 공급되는데 그게 열정과 에너지로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뚫고 나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야

하는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과 유격 없이 달라붙어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우리 마음이 유격 없이 달라붙어 버리므로, 그 상황에 맞물려서 체념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무기력해져버립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 마음이 붙으면 마음이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철병거에 가서 마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철 병거에 마음이 붙었을 때 내 마음에 열정도 에너지도 주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아닌 철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으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열정과 에너지는 주어지게 됩니다.

사토리 세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시대, 경제의 침체국면, 일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벌들의 행태가 괘씸한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이 그들만 탓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히 행하심이 재벌들의 행태로 인해 방해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잘못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체념이 지배적인 구조 안에서라도, 우리는 그 구조에 마음이 찰싹 달라붙은 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구조가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체념과 무기력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회구조나 사회현상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유격을 없앨 것이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유격을 없애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이 저성장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선민이 다른 점은 선민은 저성장시대에 마음을 붙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이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가족들과 살더라도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오늘 뿐인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하루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세태와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찌르려고 하시는데 철 병거 때문에 무찌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용기도 열정도 에너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삽니다. sensation하게 세상을 뒤집어야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끼 밥을 먹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열정과 에너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토리 세대가 사사기 350년입니다. 복지전쟁이 여호수아까지 진행되다가 사사기의 시

대가 나타납니다. 절대 이렇게 살아가면 복지가 주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사사기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토리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죽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붙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서 하나님께 붙으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열정과 끝없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함으로 신앙에 찾아올 수 있는 사토리 세대의 특징들을 날마다 이겨내며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